

현장 보고

## 지구 반대편 칠레의 대학생들이 준비하는 통일 한국\*

민원정 (칠레가톨릭대 & 서울대)

### 씨앗심기

칠레 언론에 북한 관련 뉴스가 뜨는 날이면 동료, 친구, 지인, 학생들은 한국에 전쟁이라도 날 듯 호들갑을 떠다. 가끔은 혹시 전쟁이 나기를 바라나 싶기까지 하다. 학기 첫 시간에 한국에 대해 아는 바를 물으면 남북문제는 빠지지 않고 나오는 답 중 하나다. 그러나 정작 한국에 대해 잘 아는 학생들은 많지 않다. 오히려, 잘 모를수록 남북문제에 관심도 많고, 할 말도 많다. 한반도의 통일 가능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칠레를 비롯한 중남미의 언론과 학계에서 한반도를 다루는 방식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다. 한국과 관련한 대부분의 보도가 핵 실험과 같은 중요 사건이 터졌을 때 나오는 정도다. 한반도와 관련한 연구도 많지 않을

---

\* 칠레가톨릭대학교의 국제한국학학술대회와 한국학논문대회를 지원해주신 기관 및 협찬사 모두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후통일시뮬레이션을 도와주시고 아낌없는 조언을 해주신 분들과 참가한 학생들에게도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뿐더러 간헐적으로 정치와 국제관계 관련 논문이 보인다. 칠레대학교 국제관계대학원에서 발간하는 *Estudios Internacionales*, 칠레 외교부에서 발간하는 *Diplomacia*, 칠레 국방부 산하 국립 정치 및 전략 학교에서 발간하는 *Revista "Política y Estrategia"*, 육군에서 발간하는 *Escenarios Actuales* 등의 학술지에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 북한 핵 문제, 북한·중국·미국의 긴장 관계, 일본과 북한의 관계, 한반도의 통일 전망 등을 주제로 한 논문들이 간혹 실렸다. 한반도 상황만을 다루기보다는 주변국과의 관계에 관심이 많다는 점이 두드러진다. 2019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회동과 관련해서는 언론 보도는 많았으나 추후 분석이나 논문은 보이지 않는다.

칠레는 남미에서는 최초로 1949년 대한민국 정부를 공식 인정한 나라다. 1962년 4월 18일 국교 수립에 합의한 이후 1966년 주칠레 대한민국 상주 대사관이 산티아고에, 그리고 1974년 주한국 칠레대사관이 서울에 각각 설치되었다. 2004년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된 이래 현재 한국과 칠레는 양자 국방 협력 협정, 정보 통신 기술 분야 협력 양해 각서, 교통 협력에 관한 양해 각서, 교통 협력에 관한 양해 각서, 전자 공공 관리 분야 협력에 관한 양해 각서 등을 체결했다(주칠레대한민국대사관).

칠레 정치의 특징 중 하나는 정치적 이념보다는 자유 시장 우익과 사회 민주주의 좌익 사이의 양극화다(Feinberg, 2019). 국내 제조업이 발달하지 않은 대신 유럽 연합 외에도 30여 개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했다. 칠레는 또한, 미국과의 연결고리가 강한 중미보다 정치적으로도 미국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운 편이다. 1970년 북한과 외교 관계를 수립하고 1973년 칠레에 군사 정부가 수립된 이후 외교 관계를 단절했으나 민주 정부가 들어선 1992년 다시 관계를 회복했다(Jara A., 2017). 2017년 북한이 미국령 괌에 미사일을 발사할 계획이라는 데 분개한 트럼프 정부는 북한을 외교적으로 고립시키기 위해 펜스 부통령을 통해 칠레 정부에 북

한과의 모든 관계를 끊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칠레 정부는 미국의 의견을 존중하되, 북한과의 외교 관계를 단절할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The Santiago Times, 2017). 현재 칠레와 북한은 각각 상주 대사관을 두지 않는 않지만, 중국 주재 칠레대사관이 평양과 관련한 업무를 맡고 있다.

칠레에서 한반도 및 통일과 관련한 연구가 많지 않은 데에는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한국과 칠레 관계가 무역 중심의 교류에 치중되어 있고 정치적 이념이나 대립이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칠레 상황이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지리적·문화적 거리도 무시할 수 없다. 그러나 소프트 파워와 공공외교정책이 중요성이 나날이 강조되는 요즘, 그리고 남미 여러 나라가 남·북한과 동시에 외교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에서, 칠레를 비롯한 남미에서 한반도 상황에 관한 관심을 조성해 연구 동기를 부여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분위기를 고려해 한반도에 대한 학생들의 막연한 호기심과 학문적 관심의 접점을 찾자 2010년 1학기 “한국의 언어와 문화”(LET035 E)<sup>1)</sup> 수업 활동의 하나로 후통일시물레이션을 시작했다. 칠레가톨릭대학교의 한국학 관련 수업은 2004년도 2학기에 아시아 전반에 대한 팀티칭 수업에 한국 부분이 포함되고 2006년부터 단독과목이 개설되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그동안 「한국의 언어와 문화」, 「역사 속 한국 여성」, 「한·중남미 비교 문학」(이상 문과대 수업), 「한국의 역사와 문화」, 「한·중남미 비교문화」, 「동북아의 대중문화」(이상 역사학과 수업) 등의 수업이 개설되었다. 2012년부터는 1학기 「한국의 역사와 문화」, 2학기 「한·중남미 비교문화」 수업을 기본으로, 학생들의 요구와 학과 사정에 맞춰

1) 문과대 선택 과목, 아시아학부전공 선택 과목으로 2006년부터 2011년까지 개설되었다. 이후 2012년부터는 역사학과 교양과목(IHI2315 한국의 역사와 문화)으로 바뀌었다. 전 학교 전 학과 학생들이 수강할 수 있고, 역사학과 선택, 대학 전체 학부생 대상 교양, 그리고 아시아학부전공 선택 과목 중의 하나다.

여타 수업들이 학기별로 달리 제공된다.

칠레가톨릭대학교에서는 한국학 관련 수업 이외에도 2007~2016년(국제교류재단 지원), 2018년(한국학중앙연구원 지원)에 11회의 학부생 대상 한국학논문대회와, 2008~2016년(국제교류재단 지원), 2018년(한국학중앙연구원 지원)에 10회의 국제한국학학술대회가 열렸다. 1회에서 8회까지의 한국학논문대회 수상작은 『씨앗심기, 싹틔우기, 꽃피우기: 칠레 학생들이 바라보는 한국』, 그리고 『싹틔우기, 꽃피우기, 씨앗심기: 칠레 학생들이 바라보는 한국』이라는 제목으로 2011년과 2015년에 각각 출판되었다. 국제한국학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논문 중 선별된 논문은 2년 간격으로 출판되었다.<sup>2)</sup> 행사에 참석하신 해외 초청 교수들로 구성된 국제위원회가 행사의 주제, 학자 초청 및 출판에 대한 자문 역할을 맡는다.<sup>3)</sup>

<sup>2)</sup> *Corea una visión interdisciplinaria*(2010), *Corea un acercamiento multidisciplinario*(2012), *Corea una aproximación humanista a los estudios coreanos*(2014), *Comunicación política, diplomática y sociocultural entre Corea y el Mundo*(2017)

<sup>3)</sup> 국제위원회 위원은 다음과 같다(참가 연도, 참가 당시 소속과 직위): Jennifer Jung Kim(2008), John Duncan(2009), UCLA, USA; †Jaime Silbert(2008) Universidad Nacional de Córdoba, Argentina; José Luis León(2009) Universidad Metropolitana Xochimilco, Mexico; David Straub(2010), Daniel Sneider(2011), Katharina Zellweger(2012) Stanford University, USA; Enrique Valencia(2010) Universidad de Guadalajara, Mexico; 박태균(2012), 정근식(2013), 김병로(2014) 서울대학교; Renato Balderrama(2012) Universidad Nacional de Nuevo León, Mexico; † Nancy Abelman(2013)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USA; Ross King(2013)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Canada; 강석화(2013) 경인교육대학교; George Katsiaficas(2014) Wentworth Institute of Technology, USA; Hyaewool Choi(2014) National University of Australia; Scott Snyder(2014)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USA; Pekka Korhonen(2015) University of Jyväskylä, Finland; Werner Pfennig(2015) Freie Universität Berlin, Germany; 정병모(2015) 경주대학교; 김백영(2015) 광운대학교; Edward Shultz(2016) University of Hawaii at Manoa, USA; Geneviève Marchini(2016) Universidad de Guadalajara, Mexico; Rüdiger Frank(2016), Universität Wien, Austria; 이근주(2016) 이화여자대학교; Aimee Lee(2016) Artist; Owen Miller(2018) SOAS University of London, England; José

〈그림 1〉 제1회~제10회 국제한국학학술대회 포스터



(사진 세사르 라라)

## 싹틔우기

후통일시물레이션의 결과는 기대 이상이었다. 학생들은 6자 회담 참가 국가로 나뉘어 통일 후 한반도의 국가 형태에 대해 논의했다. 수강생 중 8명을 선발해 2011년도 제4회 국제한국학학술대회에 주니어 패널을 구성했다. 2010년도 제3회 행사의 초청 학자였던 스탠포드 대학교의 데이빗 스트룹 교수는 “이루어질 수 있는 허구라는 매력적인 프로젝트”라며 UN Special Envoy 역할을 자청했다. 학생들은 6자 회담과 UN, 그리고 독일을 맡았다. 학생들의 전공은 역사학, 시청각, 신문방송학, 스페인어 문학, 법학 등으로 다양했다. 데이빗 스트룹 교수는 데이빗 스마이스, 참

---

Felipe López Aymes(2018) Universidad Nacional Autónoma de México; 김동노(2018) 연세대학교; David Chung(2018) University of Michigan, USA; Matthias Middell(2018) Universität Leipzig, Germany.

가 학생들은 각자 맡은 역할에 맞는 이름을 지었다. 필자는 Dr. Min으로 분해 행사 당일 도입부를, 경인교육대학교의 강석화 교수는 자문을 맡았고 이 두 역할은 이후에도 이어졌다. UN Special Envoy 부분은 사전 녹화를 준비했다. 데이빗 스트롭 교수는 사전 녹화가 있음에도 행사 당일 스카이프를 실시간으로 UN 측의 의견을 전달했다. 학생들과 필자는 두 달 이상 매주 금요일마다 모여 패널을 준비했다. 회담 장소는 칠레의 수도 산티아고로 정했다. 칠레는 한국 최초의 자유무역협정 파트너, 한국은 칠레 최초의 아시아국가 파트너다. 산티아고에는 UN 산하 ECLAC(중남미 카리브경제위원회) 사무소가 있을 뿐더러 칠레는 북한 대사관은 없지만 남·북한 모두와 외교 관계를 맺고 있다. 통일 후의 한반도에 대해 논의하기에 적절한 중립적인 장소라고 판단했다. 지도교수로서 필자는 학생들에게 주제와 지침을 주되 토의 내용은 최대한 학생들의 자율에 맡겼다. 학생들은 통일 한국의 정치 형태로 연방 정부를 결정했다.

이후 주니어 패널은 국제한국학학술대회의 고정 코너가 되었다. 주니어 패널에 참가하기 위해 「한국의 역사와 문화」 수업을 듣는 학생들도 생겨났다. 2012년 제5회 국제한국학세미나 주니어 패널의 주제는 통일 한국의 역사교육이었다. 학생들은 남·북한 각 두 명, UN, UNESCO(교육과학문화기구)를 맡았고 전공은 사회사업, 토목공학, 역사학, 사회학 등이었다. 데이빗 스트롭 교수가 다시 UN Special Envoy가 되었다. 학생들의 질문을 취합해 독일 베를린자유대학에서 박사후과정을 밟고 있던 박명준 박사에게 의논했다. ‘독일에서 온 편지’ 코너가 추가되었다. UN Special Envoy와는 행사 당일 스카이프를 연결하고 독일에서 온 편지 코너는 사전 녹화로 준비한 후 한국어를 학생들과 스페인어로 번역해 자막을 달았다. 2012년부터 이후 회담 장소는 판문점으로 정착되었다. 통일 이전과 이후의 맥락을 구분 지으려는 의미였다.

주니어 패널의 세 번째와 네 번째 주제는 통일 한국의 사회·문화 통

합이었다. 학생들은 남·북한 각 두 명과 UN, UNDP(UN개발계획)로 나뉘었다. 2013년도에는 서울대학교의 박태균 교수가, 2014년도에는 베를린자유대학교의 베르너 페니히 교수가 각각 스카이프로 UN Special Envoy 역할을 맡았다. 학생들의 전공은 역사학, 경제학(2013년), 인류학, 역사학, 자유 전공, 정치학(2014년) 등이었다. 2013년에는 독일 베를린자유대학교 박사후과정에 있던 김학재 박사가 ‘독일에서 온 편지’ 코너를 담당했다.

2015년 제8회 국제한국학학술대회의 주니어 패널은 학회에 참석한 베르너 페니히 교수가 현장에서 직접 UN Special Envoy의 메시지를 전달해 더욱 특별했다. 이후부터는 행사 초청 교수 중 한 분께 직접 UN Special Envoy를 부탁드렸다. 2015년의 주제는 DMZ, 참가국 및 기관은 남·북 대표 각 두 명, UN, UNDP, UNESCO로 정했다. 영문학, 지리학, 역사학과 학생들이 참여했다.

2016년 여섯 번째 주니어 패널의 주제는 한반도의 비핵화로 6자 회담 국가가 다시 모였다. 역사학, 정치학, 심리학, 수학, 교육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참가했다. 그 해 국제한국학학술대회의 초청 교수인 오스트리아 비엔나대학교의 루디거 프랑크 교수가 UN Special Envoy로서 참가국 대표들을 독려했다.

2018년 제10회 국제한국학세미나의 주니어 패널은 통일 후 한반도 내 인구 이동에 대해 토의했다. 디자인, 토목공학, 지리학, 스페인어문학, 철학, 역사학과 전공의 학생들이 남·북한 대표 각 두 명과 중국, UN 역할을 담당했다. UN Special Envoy는 행사 초청 교수인 독일 라이프치히대학교의 마티아스 미들 교수였다. 미들 교수는 동독 출신으로서 드물게 통일 후를 ‘비교적 잘’ 지내는 경험자의 입장과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해주었다.

스탠포드대학교의 다니엘 슈나이더(2011)와 카테리나 젤웨거(2012) 교수, 서울대학교의 정근식 교수(2013), Council on Foreign Relations(미국의외

교협회)의 한·미프로그램 디렉터 스캇 스나이더(2014) 등은 후통일시물레이션을 직접 본 후 칠레 학생들의 기발한 아이디어를 칭찬하며 아낌없는 조언을 주었다. 베르너 페니히 (2014, 2015) 교수는 아이디어가 매우 좋고 패널 진행 방식도 훌륭했으며, 참가자들이 설득력 있는 태도로 역할을 소화해 정치적 현실을 잘 반영한 모의 회의였다고 말했다. 광운대학교의 김백영 교수(2015)는 한반도를 둘러싼 문제들은 매우 복잡하고 민감하며 많은 것들이 연관되어 있어 결코 다루기 쉽지 않은 사안인데 이를 토론하는 학생들의 모습이 인상 깊었다며, 국제학술대회에서 이렇게 의미 깊은 학생 참여형 프로그램을 본 적이 없다고 평했다. 서울대학교의 김병로 교수(2014)는 북한 학자들이 참여하는 국제고려학회를 소개하며 주니어 패널이 칠레 학생들에게 한반도 통일에 관심을 갖게 하고 이들의 활동을 통해 국제 사회에 한반도 분단과 통일 지지를 높이는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그림 2〉 2015년 UN Special Envoy 베르너 페니히 교수와 주니어 패널 참가 학생들. 맨 왼쪽은 필자, 오른쪽에서 네 번째는 베르너 페니히 교수



(사진 파울리나 김)



## 꽃피우기

한국에서 짐작하고 기대하는 한국의 이미지와 외국이 바라보는 한국의 이미지가 늘 일치하지는 않는다. 이는 지구 반대편 칠레와 같이 지리적·문화적 거리가 먼 곳에서는 더 흔하다. 한류에 대한 관심이 반드시 한국학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지도 않는다. 칠레에서 K-pop 공연이 열리면 한국 언론에는 중남미에 부는 한류 봄에 대해 호들갑이 일고, 북한의 핵실험 관련 뉴스가 칠레 언론에 나오면 칠레에는 한반도의 전쟁 위험은 물론 김정은의 광기까지 어수선한 이야기가 넘친다.

한국학 관련 수업과 활동을 통해 한국학의 의미와 방향이 칠레 학생들이 한국에 대한 상상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마당이 되게 하려 노력했다. 칠레를 비롯한 스페인어권 학생들의 상상력과 창의력은 기발하다. 후통일시물레이션에 참가하는 학생들은 각자 맡은 국가와 기관에 어울리는 이름을 짓고 복장을 갖추곤 한다. 북한을 맡은 학생들은 일부러 종이 봉치를, 남한을 맡은 학생들은 태블릿PC를 들고 회의장에 들어서기도 한다. 수업 시간과 주니어 패널에서 후통일시물레이션에 참가한 학생들은 한반도의 역사와 국제 정세를 살피는 일이 동북아 전체의 맥락을 짚는 기반이라는 점에 놀라 자발적으로 자료를 찾아 조사하고 연구한다.

남한과 북한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은 남미에서 한반도 정세에 대한 바른 이해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다. 그러나 후통일시물레이션에 참가한 학생들은 수업 수강 후나 주니어 패널 참가 후에 한반도에 대한 관심의 폭이 더욱 커졌다고 말한다. 2015년 주니어 패널은 통일 후 DMZ에 임야보호지역을 설치할 것을 건의했다. UN과 UNESCO, UNDP는 인적·물적 지원을 약속했다. 남·북한 대표들은 각각 진보와 보수, 온건과 개혁파로 같은 편, 다른 의견도 개진했다. 후통일시물레이

션은 전문가가 아닌 학생들 보통의 눈높이에서 현재 외국인들의 한반도 상황에 대한 인식의 정도를 보여주는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저명한 학자들이 이 활동에 공감하고 화상회의를 통해, 혹은 지리적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UN Special Envoy 역할을 맡기 위해 칠레를 방문해 국제한국학 학술대회에 참여하는 열성을 보인 이유도, 세계의 일원으로 함께 토의해야 할 제안이라는 점에 동의했기 때문일 것이다.

후통일시뮬레이션을 준비하는 칠레 학생들은 인터넷을 통해 남한 자료, 북한 자료, 가리지 않고 볼 수 있다. 경제 관계 이외의 정치적 이해가 별로 없으니 표현에 편견도, 쓸림도, 거리낌도 없다. “꿈꾸는 데에는 돈이 들지 않는다”는 칠레 속담이 있다. 누가 아는가. 언젠가 통일 한국에서 칠레 학생들이 상상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지.

## 【참고문헌】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KOFICE), 『2018 한류 리소스북. 라틴아메리카 한류 스토리』. 서울: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2019.

민원정, 「칠레 속 중국」 『성균차이나브리프』 통권 56호, 2020, 169~175쪽.

Min, Wonjung, “Book Review: *Reading North Korea, an Ethnological Inquiry*. By Sonya Ryang.” *The Journal of Asian Studies*, vol. 72, no. 4 (2013), pp. 1014-1015.

Min, Wonjung, “A Short History of the Ups and Downs of Korean Studies in Latin America.” *The Journal of Contemporary Korean Studies*, vol. 2, no. 1 (2015), pp. 181-197.

Min, Wonjung, “Post-unificaiton Inter-Korean Intercultural Communication: Examining the Impact of History Education on New Identity Formation.” *S/N Korean Humanities*, vol. 2, no. 1(March 2016), pp. 105-121.

민원정, 「칠레 학생들이 생각하는 통일 한국」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진흥사업단 뉴스레터』, vol. 40(온라인), 2014년 7월.

민원정, 「칠레가톨릭대학교의 한국학」 『Translatin』, vol. 29(온라인), 2014년 9월.

민원정, 「시위와 코로나, 칠레 학생들의 화면 속 도전」 『한국학중앙연구원 국제교류처 뉴스레터』, vol. 198(온라인), 2021년 1월.

주칠레 대한민국대사관. <https://overseas.mofa.go.kr/cl-ko/index.do>

Feinberg, Richard E., “Chileans Learned the Right Lessons After the Pinochet Era.” *Brookings*, November 18, 2019.

<https://www.brookings.edu/blog/order-from-chaos/2019/11/18/chileans-learned-the-right-lessons-after-the-pinochet-era/>

Jara A., Ramón, “Marcada por la Guerra Fría: La historia de las relaciones diplomáticas entre Chile y Corea del Norte.” *emol.com*, September 4, 2017.

<https://www.emol.com/noticias/Internacional/2017/09/04/873881/Marcada-por-la-Guerra-Fria-La-historia-de-las-relaciones-diplomaticas-entre-Chile-y-Corea-de-l-Norte.html>

*The Santiago Times*, “Chile rejects U.S. request to cut ties with North Korea,” *The Santiago Times*, August 17, 2017.

<https://santiagotimes.cl/2017/08/17/chile-rejects-u-s-request-to-cut-ties-with-north-korea/>

민원정(Min, Won-Jung)

---

칠레가톨릭대학교 역사학과 교수, 아시아학센터 집행위원, 서울대학교 규장각 국제한국학센터 규장각 펠로우. 주요 연구로는 『Transnational Hallyu: The Globalization of Korean Digital and Popular Culture』(공저, 2021), 「The Perfect Man: The Ideal Imaginary Beauty of K-pop Idols for Chilean Fans」(2021), 「Mis Chinos, Tus Chinos: The Orientalism of Chilean K-pop Fans」(2020) 등이 있다.